

희곡

아들의 흔적을 따라 만들어진 길 배은심·이경란
이한열 어머니, 배은심의 삶

회고

아들의 흔적을 따라 만들어온 길*

이한열 어머니, 배은심의 삶

배은심(구술자) _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명예회장

이경란(면담자) _ 이한열기념관 관장



배은심이 살아온 길

- 1966.8. 넷째이자 큰 아들인 이한열 탄생.
- 1970. 광주 지산동으로 이사.
- 1987.6.9. 이한열 최루탄 피격.
- 1987.7.5. 이한열 사망.
- 1987.7.9. '애국학생 고 이한열 열사 영결식' 후 광주 망월동 3묘역에 안장.
- 1987.8. 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활동 시작.
- 1997.11.~2000.3. 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회장.
- 2000.~2004.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 위원 활동.
- 2007.5.~2013.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회장.
- 2020.2.~현재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명예 회장.

* 2021년 5월 6일 광주 지산동 자택에서 구술 진행. 2010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에서 진행한 구술 작업 참고.

글에 들어가기 전에

이 글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 이한열의 어린 시절과 그날 이후’는 배은심 여사의 말씀을 큰따님인 이숙례 님이 듣고 어머니를 화자로 하여 서술식으로 정리하였습니다. 2장 이후는 87년 이후 어머니의 활동을 이한열기념관 관장 이경란 이 어머니와 나는 이야기를 대담식으로 정리하였습니다.

1. 이한열의 어린 시절과 그날 이후

1962년 두 딸과 함께 남편의 직장을 따라 전라남도 화순군 능주면에서 살게 되었다. 세 번째도 딸을 낳아 딸 셋을 키우면서 아들 낳기를 진심으로 소망하였다. 넷째를 잉태하였을 때 하늘에서 무지개를 타고 내려오던 아이가 내 품에 안기는 태몽을 꾸었다.

1966년 8월 29일, 이한열이 태어났다. 그토록 바라던 아들이었기에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지인들은 물론이고 동네 사람들까지 모두 축하해 주었으며 ‘이 세상을 다 얻은 것 같다’라는 말을 실감할 수 있었다. 나에게 이한열은 태어날 때부터 크나큰 선물이었다.

3년 뒤에는 또 아들을 낳아 딸 셋에 아들 둘을 가진 다복한 가정을 이루었다.

한열이 4살 되던 해 1970년, 광주광역시 지산동에 집을 지어 이사를 하였다. 여기서 5남매를 키웠고, 1987년 한열을 떠나보내고, 5년 후 한열이 아버지가 쓰러져 투병하다가 아들을 가슴에 묻은 채 1995년 세상 떠나시

니 지금은 홀로 남아 이 집과 함께한 세월이 50년이 되었다.

누나가 셋인 한열이는 온화한 성품으로 누나들을 잘 따르고, 동생을 잘 배려할 줄 아는 형으로서도 항상 모두의 기대에 부응하면서 잘 자라주었다. 누나들은 내가 아들만 편애한다고 가끔 불만을 말하곤 했지만, 바라만 봐도 좋은 마음을 속일 수는 없었나 보다. 학교에서도 학우들과 선생님들께 인정받으면서 매년 받아오는 임원 임명장과 여러 상장을 모으면서 얻는 기쁨은 참으로 컸다. 또 학부모로서 가끔 학교에 다녀올 때면 내 아들 한열이로 인해 나도 칭찬을 받으니 그 뿌듯한 마음이 며칠씩 가곤 했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또래보다 의젓하고 학업에 열중하며 타인에 모범적인 행동으로 주변에서도 촉망받는 학생이었다고 회고하는 말을 자주 들을 수 있었다.

아들이 가고 난 뒤에야 세상에 나와 있는 한열이의 글을 보게 되었다. 중학교 때부터 쓴 글이 있던데 아들과 사회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본 적이 없어서 내가 아들을 너무 몰랐다는 게 참으로 안타까웠다. 어찌 그리 일찍부터 성숙한 글을 쓸 수 있었는지. 타인들이 아들에 대해 말해준 것들을 마치 입중이라도 한 것처럼. 이렇게 나에게서는 너무나도 큰, 아들이었던 것임을 뒤늦게야 알게 되었다.

1982년 한열이가 광주진흥고등학교에 입학하였다. 고등학생이었지만 키가 훗칠하여 밖에 나가면 청년으로 볼 만큼 잘 자랐다. 그 당시에는 교복 자율화로 교복이 없고 사복을 입었던 시절이다. 대학생인 누나와 함께 길을 걸어가면 사람들이 누나의 남자친구로 본다기도 하였다.

한열이는 고등학생이 되어 학생회 활동을 활발히 하였다. 2학년 때는

광주지역 각 고등학교 학생회 간부들과 기관에서 주관한 수련회에 참가하여 쓴 글이 채택되어 그 기관에서 발행하는 신문에 게재되기도 하였다. 3학년 때는 전교 학생회장을 맡게 되었다. 지금도 사진으로 남아 있지만 사열할 때 연대장 옷을 입은 한열이의 모습은 참으로 의젓해 보였다.



진흥고 3학년 연대장 시절 기수단과 함께.

대학 학력고사를 3개월 앞두고 학교에서 합숙을 시작했다. 합숙이 시작되고 며칠이 지나자 잠자리에 불

편을 느낀 학생들이 하나둘 밤에는 집으로 돌아갔다. 나도 아들의 건강이 걱정되어 집에 와서 잘 것을 권했으나 집이 멀어서 갈 수 없는 친구들에게 미안하다며 끝까지 학교에 머물렀다. 또 집에서 가져간 도시락을 매번 나눠 먹은 것을 알고 난 뒤에 도시락을 두 개씩 싸서 학교에 가져다주기도 했다. 너무나 행복한 시간들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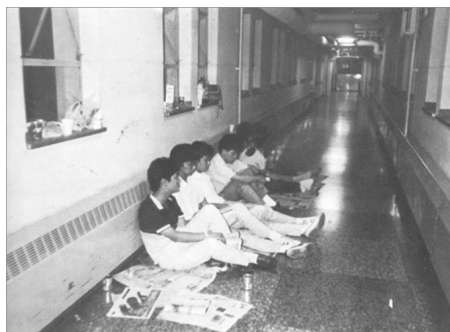
1986년 한열이가 연세대학교 경영학과에 입학하였고, 대학을 졸업하고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게 된 셋째 누나와 함께 지내기로 했다. 연휴나 방학 때 광주에 내려와 잠깐씩 지내고 갔고, 편지도 보내오곤 했다. 고등학생인 동생의 학업과 진로도 챙기면서 순탄한 대학 생활을 보내고 있는 줄 알았다. 나는 초등학교사인 첫째 딸이 내게 안겨준 첫 손녀를 돌보면

서 46살에 할머니가 되어 또 다른 인생을 살고 있었다. 5남매를 키웠지만 손녀는 자식과는 또 다른 기쁨을 가져다주었다. 이렇게 나의 일상은 별 탈 없이 하루하루를 평범하게 잘 지내고 있었다.

1987년 6월 6일 현충일, 연휴가 되어 한열이 광주집에 다녀갔다. 대학생들의 시위가 뉴스에 자주 나오고 셋째 누나로부터 한열이도 시위에 참여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내심 걱정이 되었다. 그래서 내가 한 말은 “앞장서지는 말고 뒤에서만 하거라”였다. 하지만 이게 한열이와 나는 마지막이 될 줄이야.

1987년 6월 9일 화요일, 이날도 18개월 된 손녀와 함께 화단에 핀 꽃을 보면서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손녀와 잠깐 누워있는데 누군지는 모르지만 무슨 잠을 이렇게 자냐고 호통을 치는 소리를 듣고 얼른 일어났다. 이상하다. 꿈도 아니고 이게 뭐지? 하고 있자니 전화벨이 울렸다. “여보세요.” 말이 없다. “여보세요. 한열이 집이지요. 한열이가 위독해요.” “네? 왜요? 무슨 소리예요? 우리 한열이 그제 서울 갔는데 무슨 소리요? 누가 위험해요?” “한열이가 위독해요.” “왜요? 우리 한열이가 왜 위독해? 거기 어디요?” “예 연세대학교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유는 말하지 않았다. 앞이 캄캄했다. 대낮에 무슨 날벼락인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진다. 감기 한 번 앓아본 적이 없던 우리 한열이가 위독하다니!

급히 집에 온 한열이 아버지와 함께 광주터미널에서 7시 버스로 강남 터미널에 도착하니 밤 12시경. 상경대 교수님과 학생 몇 명이 터미널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을 따라 나섰으나 아무도 무슨 말을 하지 않았다. 세브란스 병원에 도착하니 로비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모두가 표



경찰의 침입에 대비하여 병실을 지키는 학생들
1987. 6. 9. 이후 한 달 내내 지켰다.



이한열 장례 행렬, 연세대 정문 앞 1987.7.9.

정이 이상했다. 그리고 한열이가 중환자실에 있다고 거기로 가자고 했다. 중환자실 문을 열고 들어서며 가까스로 정신을 차려 보니 내 아들이었다. 의식 없이 산소 호흡기에 의지하며 누워 있는 아들을 보고 한열아 왜 이렇게 누워 있냐고, 아빠랑 엄마 왔으니 빨리 일어나라고, 우리 한열이 종강하면 광주 집에 빨리 온다고 했는데 어떤 놈들이 착한 내 아들을 이렇게 만들었냐. 한열이 살려내라고 소리쳐 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테모를 해도 앞에 서지 말고 뒤에서 하라고 하면 엄마 걱정하지 말라 해놓고 왜 이렇게 누워 있어?’

병원 여기저기 ‘한열이를 살려내라’는 벽보가 붙어 있었다. 중환자실 주변에는 학생들이 신문을 바닥에 깔고 한 장 덮고 잠을 잤다. 교수님들도 옆 의자에서 밤을 지새고, 간호사님들은 채플에 모여 한열이가 빨리 쾌차하기를 기도 드리고, 불교 기독교 천주교 신자 분들도 한열이 일어나라고 염원해 주셨다. 나도 한열이 아버지도 누나들도 정신을 차려가며 한

열이 좀 제발 살려달라고 천 번 만 번 빌어 보았지만 27일 동안 사경을 헤매다가 7월 5일 새벽 2시경. 끝내 아들은 내 곁을 떠나갔다.

1987년 7월 9일 망월동 3묘역에 한열이 묻혔다. 나는 매일 손녀를 업고 한열이를 찾아갔다. 34년 전 그 길은 비포장 길로 좁고 구불구불한 십여 리 길을 걸어서 가거나 혹은 택시를 타야 했다. 아침이면 거의 매일 가서 녀를 잃고 앉아 있다 오곤 했다. 보다 못한 한열이 아버지가 동네 택시기사와 시간을 정해 놓고 약속을 해서 타고 다니도록 해주었다. 그러나 어떤 날은 그 시간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집을 나설 수밖에 없었다. 정신없이 다니다 보면 밥을 챙겨 먹는 날도 극히 드물었고, 가끔은 망월묘역 관리 사무소 아주머니가 챙겨준 길로 끼니를 때우기도 하였다. 참 고마운 분이였다.

나를 따라다니던 손녀는 그 또래 아이들이 부르는 동요 대신 투쟁가를 배워 불렀고 집에 돌아와서는 참배객들이 산소에서 하는 행동을 흉내 내며 자랐다. 가슴 아픈 일이었다. 이후 나는 가정을 거의 내팽겨 놓고 시위 현장에 뛰어들었다. 집에 있을 수가 없었다. 아들이 왜 앞장섰는지 알기 위해, 그토록 외치며 바라던 세상과 못다 이룬 뜻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 보고자 함이었다.

반면에 한열이 아버지는 가슴에 묻은 아들을 보낸 지 5년째 되는 해인 1992년 6월 뇌출혈로 쓰러진 후 실어증으로 말씀을 못하시더니 3년 동안 투병하다가 결국 63세의 짧은 생을 마감했다. 내가 가정을 등한시하고 정신없이 시위 현장을 누비고 다니는 동안 한열이 아버지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홀로 가슴앓이하며 그 무거운 마음을 감내하기가 얼마나 힘들었

을까. 나만 생각하고 남편을 돌보지 못했던 것이 죄송하고 후회가 되기도 했다. 내 나이가 48살에 한열이를 보내고 난 후부터 내 삶도 없어졌다. 남은 자식들 돌아볼 여력도 없었고 오로지 부모 앞에 가버린 아들을 잡기 위해 지금껏 몸부림치며 살아왔다. 이로 인해 누나들과 동생도 긴 세월 동안 아픔을 누르면서 살아왔을 거라는 생각이 지금에야 든다. 아니 알고 있었지만 내색할 수가 없었다. 다섯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지만 내게 한열이는 참으로 아픈 손가락이었기에, 이런 나를 묵묵히 바라봐 주고 제자리에서 굳건히 지켜준 나머지 자식들이 고맙고 미안하기도 하다.

손꼽아 보니 올해 내가 83세가 되었고 한열이 내 곁을 떠난 지도 34년이 되었으나 언제나 내 마음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1987년 그 날이다.

유가족 협의회 회원이 되다

민주화 과정에서 혈육들이 희생당한 가족이 모인 단체가 있다고 거기 한번 가보자고 해서 처음 찾아 간 곳이 합정역 마리스타 수녀원이다.

1987년 8월 12일 창립 1주년 행사장에는 많은 분들이 모여 있었다. 오신 분들의 소개가 끝나고 ‘저는 이한열 엄마입니다’ 하니 한열이 엄마도 우리 가족이 되어야지 한다. (그래서) 그렇게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유가협) 회원이 되었다. 처음에는 많이 슬펐고 내가 왜 유가협 회원이 되어야 하는지 기가 막혔다. 행사가 끝나고 가족 분들과 같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회원들을 따라가 보니 시위 현장이었다.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독재타도, 호헌철폐, 전두환 독재정권 물러가라! 물러가라! 나는 아무소

리도 못하고 한없이 울기만 했다. 우리 한열이가 독재타도! 호헌철폐! 이렇게 외치다가……. 최루탄을 쏘아댄다. 최루탄 연기는 앞을 볼 수 없고 시위 현장에 모여 있던 사람들은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는다. 나는 연기 속에서 한열아! 한열아! 부르며 한없이 울었다. 땅을 치며 통곡했다.

이렇게 시작된 유가협 회원 활동도 34년이 흘렀다.

우리 유가협 어머니 아버지는 노동자, 농민, 학생, 청년 등 민주주의가 상처 입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갔다. 유가협 가족들의 몸부림은 이 나라의 민주주의였고 햇불이었다. 우리 유가협 어머니 아버지들은 언제나 죽음을 각오하고 시위 현장 맨 앞줄 선두에 섰다. 때론 경찰차(닭장차)에 실려, 인가도 없는 어딘지 모를 곳에 한 사람씩 떨궈 놓으면 걸어 걸어서 집에 돌아오곤 하였다.

우리는 민주주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려야 했는지 기억해야 한다. 자주, 민주, 정의를 위해 제단에 제물로 드러진 우리의 혈육들의 피 흘림을 잊어서는 안 된다. 부모가 죽으면 땅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한다. 부모는 잊어버리고 살 수 있지만 자식이 죽었을 때 부모 가슴에 맺힌 한을 어떻게 풀 수 있을까. 앞으로는 정말 우리같이 억울한 사람이 안 생겼으면 하는 바람을 꼭 말하고 싶다.

요즈음 민주화운동을 폄하하는 정치인들의 망언을 들을 때면 가슴이 미어진다. 민주화 과정에서 사랑하는 부모, 형제를 독재정권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이들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헤아려 보고 그렇게 폄하하는지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이다.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법률 제정

1998년 11월 4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진행한 천막 농성은 많은 일화와 아픔과 기쁨의 시작이었다.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희생자들의 명예회복법과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자는 요구안을 들고 시작한 농성은 다양한 국회 앞 투쟁의 전진기지 같은 존재였다. 사실 농성이 장기전으로 갈 것으로 생각하고 시작한 것은 아니었다. 애초에는 그 해 정기 국회에서 두 개의 법안이 통과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고 그렇게 되리라 예상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실제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명예회복을 위한 법률과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법률이 하나로 만들어지기 어렵다는 의견이 대두되면서 농성은 장기전으로 가게 되었다. 지금이야 웃으며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 당시 내부적인 갈등은 위험수위를 넘나들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당면한 목표를 위해 갈등 관계를 넘어서는 투쟁은 지속되었다. 시멘트 바닥에서 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을 지내고 다음 해 말에 국회에서 두 개의 법안이 통과되면서 422일간의 농성은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었다. 사실 그 당시 유가협 회장으로서는 몸도 마음도 많이 힘들었다.

2. 아들이 왜 앞장섰는지 알기 위해

민주화실천유가족협의회(이하 유가협)¹⁾ 가입

이경란: 어머니, 유가협을 만난 건 언제쯤이세요?

배은삼: 8월 12일이 창립 1주기라고, 누가 인사를 가자고 해요. 그때부터 서울에 올라온 거죠. 합정동 마리스타 수녀원. 그날부터 유가협에 몸을 담았어요.

이경란: 그때 어떤 활동을 하셨나요?

배은삼: 나는 연세대학교에서 한열이를 데리고 나오면 다시는 못 간다고 생각해서 망월동에 물어달라고 했는데, 49재에 연세대 총학생회장 우상호가 연행이 된 거예요. 그때 교도소란 곳도 처음으로 가보고, 연세대학교 노천극장에서 날마다 노동자 투쟁을 하니깐 연세대학교에 가서 노동자 투쟁에 참여하고. 7, 8월 노동자 대투쟁에도 참여하고. 날마다 그러고 다닌 거예요.

이경란: 그 즈음 어머니님이 제안하셔서 유가협 지회를 만드셨어요.

배은삼: 87년에는 호남지회 어머니들이 열 분이 못 됐어요. 홍기일²⁾ 어

1) 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약칭 유가협.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분과로 있다가 1986년 8월 12일 독자적인 조직으로 창립. 2000년대 중반 분화되어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결성.

2) 홍기일(1960~1985 향년 26세) 전라남도 화순 출생. 5·18 민주항쟁 당시 시민군으로 참여하여 총상 부상. 1985년 8월 15일 전남 도청 앞에서 “8·15를 맞이하는 뜨거움의 무등산이

머니, 박관현³⁾ 누나, 박선영⁴⁾ 어머니, 이재호⁵⁾ 어머니. 이 사람들이 서울에 집회가 있으면 다 가야 돼요. 서울에서 살다시피 하고. 호남에서 집회가 있으면 서울에서 다 와야 되고. 그렇게 1년을 살다가 ‘지방에도 투쟁 현장이 많으니까 지회를 만듭시다’ 하고 제안을 했죠. 그것이 88년 6월 20일이예요. 이재호 아버님을 호남지회장으로 모시고 총무는 내가 하고. 그 다음에 영남지회를 만들고, 의문사지회를 만들고. 서울은 수도권지회라고 하고.

그래놓고도 서울에 무슨 일만 있으면 가요. 이재호 어머니가 중앙고속에 아는 사람을 만들어놓고 “우리 갈랑께 좀 태워주세요.” 그러면 박선영이 엄마, 이재호 엄마, 나 셋이는 밤이고 낮이고 서울을 오가면서 살았어요.

여!”라는 전단을 뿌리며 군부독재 정권에 항거하여 분신. 22일 운명.

- 3) 박관현(1953~1982 향년 30세) 전라남도 영광 출생. 1980년 전남대학교 총학생회장. 5·18 직전까지 광주 시민과 학생들의 반독재투쟁 주도. 신군부가 5.17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재야인사들을 체포하자 여수로 도피. 1982년 4월 8일 내란예비음모, 계엄령 위반 등 내란중요임무중사 혐의로 체포돼 모진 고문 받음. 5월 4일 기소되어 9월 7일 징역 5년 선고받음. 광주고등법원에 항소하여 재판 계류 중 50일 간의 옥중 단식투쟁 끝에 운명.
- 4) 박선영(1966~1987 향년 22세) 전라남도 화순 출생. 서울교육대학교 수학교육학과 입학. 1986년 5·3 인천투쟁, 11·29 신민당 개헌 현판식 투쟁 등 참가. 1987년 2월 20일 학내 비민주적 학사 운영 및 압당한 조국의 현실에 분노·항의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자결.
- 5) 이재호(1965~1986 향년 22세) 전라남도 광주 출생. 1983년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입학. 1986년 3월 ‘반미 자주화 반과쇼 민주화 투쟁위원회’ 산하 ‘반전반핵 평화옹호투쟁위원회’ 위원장. 1986년 4월 28일 ‘전방입소 결사반대 및 반전반핵 양키 고 홈’을 외치며 분신. 1986년 5월 26일 운명.

영정들의 집, 한울삼 마련

이경란: 유가협 어르신들이 기거하시는 한울삼은 어떻게 마련하셨나요?

배은심: 87년에는 사무실도 없었어. 여기 가서 하룻밤 자고, 저기 가서 하룻밤 자고. 한 어머니가 지금 법원 근처 꽃동네에 천막을 만들어서 그 속에서 주로 살았지요.

우리들이 집을 얻으러 가면 경찰이 먼저 알고 집을 못 주게 했어요. 그런 과정에서 (이소선 어머니⁶)가 집을 만들어야 한다, 사진(영정)을 갖고 다녀야 한다고 해서 89년에 그림을 모아서 전시회를 열어 집을 산 거예요. 종철이⁷ 아버지⁸ 힘이 컸죠, 그때는. (이소선) 어머니하고 종철이 아버님이 그림을 10개쯤 모아오고 그림 다른 사람들도 한 두 개씩 모아오고. 그때 유가협후원회 회장님이 문익환 목사님⁹)이셨어요.

-
- 6) 이소선(1929~2011 향년 83세) 경상북도 달성 출생. 전태일의 어머니. 1970년 11월 13일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외치며 분신한 아들에게 그 뜻을 이루겠다고 약속한 뒤 노동자의 어머니로 활동.
 - 7) 박종철(1965~1987 향년 23세) 1965년 부산 출생. 1984년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입학 ‘청계피복노조 합법성 쟁취대회’에 참가하여 구속됨. 1987년 1월 14일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고문으로 운명.
 - 8) 박정기(1929~2018 향년 90세) 부산 출생. 박종철의 아버지. 부산 수도국 근무, 1987년 1월 아들 박종철이 경찰의 고문으로 사망하자 아들의 뜻을 이어 활동.
 - 9) 문익환(1918~1994 향년 77세) 만주 북간도 명동 출생. 신학자, 목사. 1976년 3월 1일 ‘3·1 민주구국선언’ 사건으로 옥고를 치르기 시작. 1989년 3월 25일 통일의 길을 열기 위해 방북. 1994년 1월 18일 운명.



유가협 25차 정기총회를 마치고 한울살 앞에서. 2011. 2.

김대중 총재님한테 도와달라고 하고, 국회의원들이 그림도 사주고, 우리들도 돈 내고 모아갖고 그 집을 산 거예요. 유가협은 지방 사람이 많아서 위치 보고 산 거지요. 서울역서 1호선 타고 오면 금방 동대문 이니까.

아스팔트 위의 유가협

이경란: 1991년 봄에 많은 사람들이 희생됩니다.

배은삼: 4월 26일. 연세대학교에서 ‘어머니의 노래’ 공연을 합니다. 후원의 밤 공연을 준비하는데, 경대¹⁰⁾가 죽었다는 거예요. 며칠 있다가 승

10) 강경대(1971-1991, 당시 21세) 서울 출생. 1991년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입학. 1991년 4

희¹¹⁾가 분신하고, 자고 나면 죽고, 며칠 지나면 죽고. 한 달 새에 자의 타의로 10명이 넘게 죽었으니 어찌면 좋으냐고요.¹²⁾ 우리들은 그때

 월 26일 ‘학원 자주화 완전 승리와 총학생회장 구출 투쟁’ 중 경찰의 쇠파이프에 맞아 운명.

11) 박승희(1971년~1991 당시 21세) 전라북도 전주 출생. 1990년 전남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입학. 1991년 4월 29일 ‘고 강경대 열사 추모 및 노태우 정권 퇴진 결의대회’ 중 “노태우정권 타도하고 미국놈들 몰아내자! 2만학우 단결하라!”를 외치며 분신. 21일 후인 5월 19일 운명.

12) 앞에 언급한 강경대, 박승희, 김영균 외에 천세용, 김기설, 윤용하, 이정순, 김철수, 정상순 분신. 박창수 의문사. 김귀정은 경찰의 토끼몰이식 진압으로 사망. 손석용과 양용찬까지 13명을 1991년 투쟁 기념사업회에서 기념.

천세용(1971~1991 당시 21세) 서울 출생. 1990년 경원대학교 전산과 입학. 1991년 5월 3일 ‘강경대 학우 폭력 살인 자행한 노태우 정권 타도를 위한 결의대회’ 중 분신 후 투신하여 운명.

김기설(1965~1991 당시 27세) 경기도 파주 출생. 1991년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본부 사회부장으로 활동. 1991년 5월 8일 서강대 본관 옥상에서 “폭력살인 만행 노태우 정권 타도하자”고 외치며 분신 후 투신 운명.

윤용하(1969~1991 당시 23세) 전라남도 승주 출생. 노동자. 1991년 5월 10일 “노태우 정권 타도”를 외치며 전남대학교에서 분신 이틀 뒤인 12일 운명.

이정순(1952~1991 당시 40세) 전라남도 순천 출생. 1991년 5월 18일 연세대학교 정문 앞 기차길 위에서 “공안통치 종식, 노태우 퇴진”을 외치며 분신 후 투신하여 운명.

김철수(1973~1991 당시 19세) 전라남도 보성 출생. 1989년 보성고 입학. 1991년 5월 18일 보성고 운동장에서 “노태우 정권 퇴진”을 외치며 분신 2주 뒤인 6월 2일 전남대 병원에서 운명.

정상순(1966~1991 당시 26세) 전라남도 보성 출생. 1985년 보성고등학교 졸업. 1991년 5월 22일 전남대 병원 영안실 위에서 “노태우 물러가라”며 분신 후 투신. 7일 뒤인 9일 전남대 병원에서 운명.

박창수(1958~1991 당시 34세) 부산 출생. 1979년 부산 기계공고 졸업. 1981년 대한조선공사(현 한진중공업) 배관공으로 입사. 1990년 7월 한진중공업 노조위원장 당선. 1991년 2월 구속, 서울구치소 수감. 1991년 5월 4일 의문의 상처를 입고 안양병원에 입원. 1991년 5월 6일 의문의 죽음을 당함.



양심수 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300회 목요일 집회, 1999.10.07.

부터 죽을 힘이 있으면 살아서 싸우자, 죽지 말자. 그리고 다녔지요.
 이경란: 1990년대 시위 현장을 보면 유가협 어머니들이 앞에 계시는 사진
 이 많아요.
 배은삼: 학생이고 노동자고 어렵고 힘든 데는 어디든지 쫓아갔지요. 어쩔
 일인지 투쟁 현장에 가면 유가협이 앞에 서게 돼요. 최루탄을 마셔가

김귀정(1966~1991 당시 26세) 서울 출생. 1988년 성균관대학교 불어불문학과 입학. 심
 산연구회 활동. 1991년 5월 25일 '공안통치 민생과탄 노태우 정권 퇴진을 위한 제3차 범
 국민대회'에 참가하여 시위 도중 대한극장 부근에서 백골단의 토끼몰이식 진압에 의해
 운명.

손석용(1970~1991 당시 22세) 경상북도 영덕 출생. 1989년 대구대학교 초등특수교육과
 입학, 문화패 활동. 1991년 3월 군 입대. 휴가 나온 8월 18일 밤 11시 40분경 대구대학교
 에서 분신 후 투신. 몇 시간 뒤인 19일 새벽 5시경 대구동산병원에서 운명.

양용찬(1966~1991 향년 26세) 제주도 남제주군 출생. 1985년 제주대학교 사학과 입학.
 1991년 11월 7일 서귀포 나라사랑 청년회 옥상에서 "제주도 개발 특별법 저지" "민자당
 타도"를 외치며 분신, 투신하여 운명.

면서. 우리들이 연행돼서 닭장차¹³⁾에 타면 서러워서 막 울어요. 왜 우리가 이 차를 타야 하는 건지, 한 번은 닭장차를 탔는데 모르는 데로 가더니 한 2킬로(미터)쯤 가다가 한 사람 내려놓고, 또 한 사람 내려놓고 이러는 거예요. 나를 문산 쪽에다 내려놨는데 차를 따라갈 수도 없고, 서울로 갈 수도 없고. 도로변에 서서 생각을 했지요. 아직 차에 아버지들이 계시니까 내가 차를 따라가야 아버지들이 내려오시다가 만나겠다 싶어서 울며 차를 따라갔지요. 가다보니까 차가 돌아와 그 큰 도로에서 멈추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들을 만나 온 적도 있고. 어느 때는 난지도에도 내려놓고, 또 어디도 내려놓고.

우리도 지침이 있어서 어디다 내려놔도 약속한 장소로 모이자. 그래서 어디다 내려놔도 차를 타든지 뭐를 타든지 거기로 가는 거예요. 트럭도 많이 탔어요. 내려놓은 데가 차가 없으니까 염치도 없이 “태워주세요” 해서 타고 전철역까지 가서 약속한 데로 가는 거야. 그것이 투쟁이었어요.

지금 사람들이 트라우마 트라우마 하는데, 정말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들은, 우리 한울삶(사람들)이었네! 그때는 치유센터라는 것도 없이 참 서럽게 살았다고 생각해요.

이경란: 그러다 잡혀가면 어떻게 하세요?

배은심: 어머니들이 다 경찰서를 쫓아가서 왜 가둬 놔냐고 그러지요. 면

13) 시위하는 사람들을 연행해 가던 경찰차. 철망으로 차문을 덮어 좁은 닭장처럼 보여 붙은 이름.

회를 신청해서 어머니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경찰이 “이제 들어가야죠” 그러면 어머니들이 “뭘 죄가 있어서 들어가냐”고 하고, 또 좀 있으면 “이제 들어가야지요” 그 소리만 나왔다 하면 “뭘 죄가 있어서 들어가냐”고, 막 고함지르고. 어머니들은 그게 힘이에요 그게. 혼자서는 못 해. 그래도 쟁쟁한 (사람들이랑) 남자고 여자고 다 쫓아가서 그러고 있으니까.

이경란: 연행돼서 재판을 받은 적은 없으세요?

배은심: 있죠. 열한 명인가 잡혀서 각 경찰서로 분산이 돼서 하루 밤 잤어요. 그리고 즉결 심판에서 벌금을 매기더라. 4만 원씩 열한 명이 열흘씩이나 되었는데, 400만 원이 넘었어요. 지금 같으면 몸으로 때울 건데, 벌금을 내고 나와서 분한 거예요.

판사 되는 분이 벌금을 매기면서 한 말씀 주셨어요. “1인 시위는 실정법에 해당이 안 되니까, 어머니 아버지들, 혼자 1인 시위를 하시면 안 걸립니다.” 그럼 우리 1인 시위를 합시다. 종철이 아버지가 먼저 하신다고 하셨죠. 서대문 경찰청 앞에서 “경찰청장 나와라” 피켓 들고 고함도 지르고. 11일 만에 면담 요청을 들어줘서 3층 청장실에 갔어요. “청장, 여기 앉아서 우리들 눈물도 다 보이게 생겼는데,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좋습니까?” 막 뭐라 했어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단 거예요. 면담에 응해줬으니까 해산을 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돈(벌금)을 바친 게 억울한 거예요. “거기 가서 우리 일당 받아 오시오.” 해서 아버님들이 경찰서에 가서 벌금을 되돌려 받아왔는데 얇디얇은 거. 아버지가 “100만 원밖에 못 받았습니

더” 하셔서 “400 얼마 받아 오시라고 했는데, 왜 100만 원만 가져오셨소” 하니까 최우혁이¹⁴⁾ 아버지가 피익 웃으시면서 “요거 줘어” 그러서. 그때 추모연대가 같이 일을 했으니까 추모연대 30만 원 주고, 70만 원은 유가협에서 썼고. 그게 서울 전 경찰서로 소문이 다 나서, 영등포 경찰서에서 원근¹⁵⁾이 아버지도 성공했다고 했어요.

범국민합동추모제

이경란: 어머님이 유가협 회장하실 때 범국민합동추모제를 연례행사로 확실하게 만드셨어요.

배은심: 합동추모제는 89년부터 성균관대에서 시작했지. 그 뒤에 다시 그것을 범추모제로 하다가 전체를 아울러서 다시 시작했던 게 94년 쯤 됐을 거예요.

이경란: 합동추모제를 하다가 범국민추모제로 확대 개편한 이유가 있을까요?

배은심: 있죠. 합동추모제를 할 때는, 한울삶에 사진이 한 100여 명이 되

14) 최우혁(1966~1987 향년 22세) 서울 출생. 1984년 서울대학교 서양학과 입학, 학생운동에 헌신. 1987년 4월 군입대, 관찰사병으로 괴롭힘 당함. 1987년 9월 의문의 죽음을 당함. 군 입대를 권했던 어머니 자살.

15) 허원근(1962~1984 향년 23세) 전라남도 진도 출생. 1981년 부산수산대학교 입학. 1983년 군 입대. 1984년 군에서 의사. 2002년 1기 의사사위원회에서 타살 인정. 2015년 9월 대법원 국가배상 확정판결. 2017년 5월 16일 국방부 순직 인정.



한양대 합동추모제 오른쪽 끝이 이한열의 영정을 들고 있는 어머니 배은심. 1994.06.11.

는데 그 사람들을 위주로 했으니까 주로 학생, 노동자들이예요. 범추모제를 하면서는 재야, 독립운동 하신 분들 위패도 갖다 놓고. 그래서 범(凡)이라고 호칭을 달아가지고 범추모제를 한거예요. 처음에는 100명 좀 넘었는데 지금은 600명이 넘어. 전체를 다 아우르니까.

이경란: 요즘엔 새로 영정을 올리려면 신청서를 제출하고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해요.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직접 하지는 못하고 인터넷으로 했는데, 올해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전두환 노태우 사면에 대한 입장

이경란: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에 선출되시고 바로 전두환 노태우 사면¹⁶⁾이 있었는데요.

배은심: 김대중 대통령이 당신이 되고 전두환, 노태우를 석방시킨다는 거예요. 우리(유가협 회원들)는 한울삶에 상주를 하고 있으니까 빨리빨리 대처를 했지. 그래 안양을 갔어요. 유가협 아버님들하고 갔는데 벌써 석방이 된 거예요. 분통이 터져서 종철이 아버지가 머리로 방패를 박고, 피가 터지고. 분해서 견딜 수가 없더라고. 마음 아픈 사람들은 따로 있는데 권력자들 당신들만 화해를 하면 화해가 되는 건가요? 마음 아픈 사람들에게 물어나 봤나? 그때 우리 심정은 통곡을 해도 시원찮을 판국이에요.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이경란: 1997년부터 2000년까지 어머니가 유가협 회장이셨는데 그때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어요. 그 과정을 말씀해 주세요.

배은심: 1997년 11월에 내가 회장이 되었고 추모연대에서 우리 자식들 명예 회복하는 법을 만들자고 해요. 분한 것은 의문사가 나면 정부가 왜곡을 해요. 가정이 어찌느니, 동료 관계가 어찌느니 하면서 오보를 해서 범법자를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살아 있을 때 범법자라는 굴레를 벗겨줘야 한다. 자식들 명예회복을 해야 한다, 그

16) 12월 22일 김영삼 대통령이 국민 대화합을 명분으로 전두환 노태우 등 관련자 특별사면 석방.



1999년 여름, 자식들의 '명예회복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 단식 농성 중인 유가협 어르신들. 오른쪽에서 세 번째가 배은심 여사.

랬어요.

1998년 1월부터 각 단체를 찾아다니면서 서명을 받았어요. 하루에 서너 군데를 다니다가 내가 쓰러지기도 했고. 4월부터는 서울역 앞에서 지도에 (희생된) 사람을 초상화를 그려서 광장에서 세워놓고 서명을 받았어요, 매일. 6월 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준비를 해서 11월에 (국회앞에) 천막을 치게 된 거예요. 뭐 일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준비를 다 해 갖고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냥 한 번 두 번 해서 일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천막 칠 때는 12월 안에 법사위 거쳐 본회의 통과하자는 계획을 세웠는데 상정도 못하고 지나가 버렸어요.

1999년 3월에 보훈처 과장을 종철이 아버님하고 저하고 같이 가서 만났는데 “5·18에 준하는 법을 만들어서 명예회복을 먼저하고 유공자법을 만들면 된다”라고 말하길래 회의를 해서 그러기로 했어요. 의문사법은 대통령 산하로 가고, 명예회복법은 국무총리 산하로 가고. 그 뒤로 의문사는 허영춘 아버지¹⁷⁾ 중심으로 회의를 했어요.

천막 칠 때만 해도 1년 넘어 422일이나 걸릴 줄 몰랐단 말이에요. 대통령 바뀌었다고 저절로 안 됩디다. 거기서 겨울 나고 여름 나고 1999년 말에 겨우 국회에서 통과돼 갖고 2000년 1월에 대통령이 서명하신 법이 의문사법,¹⁸⁾ 명예회복법¹⁹⁾이요. 그때 서명하신 만년필이 한올 삶에 있어요.

그 뒤 법을 세 개 더 만들었어요. 인권위법,²⁰⁾ 과거사법,²¹⁾ 균의문사법.²²⁾

이경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을 줄여서 말 할 때 ‘민보상법’이라고 하는데, 어머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명예회복법’ 또는 ‘민주명예회복법’으로 줄이는 게 맞겠습니다. 보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명예회복이 중요한 법이니깐요.

17) 허원근(주 15)의 아버지.

18)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2000년 1월 15일 제정.

19)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2000년 1월 12일 제정.

20) ‘국가인권위원회법’ 2001년 5월 24일 제정.

2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2005년 5월 31일 제정.

22) ‘균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2005년 6월 29일 제정.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법 서명, 2000.1.

이경란: 법 제정 이후 위원회 구성과 사업 진행에도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셨습니다.

배은심: 법에 보면 기념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²³⁾ 위원회를 만들면서 기념사업분과를 안 만든 거예요. 이우정 위원장님한테 (이소선) 어머니 이랑 (박정기) 아버님이랑 저랑 가서 기념분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자기들이 자동으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념분과를 만들었어요.²⁴⁾ 위원으로 장남수 아버지²⁵⁾ 하고 내가 들어가서 처음

23) 제23조(기념사업) 정부는 민주화운동정신을 계승하는 기념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24)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관련자 및 유족여부심사분과위원회, 장해등급판정분과위원회, 명예회복추진분과위원회, 생활지원금지급심사분과위원회, 국가기념사업 및 추모사업지원분과위원회 등 5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됨.

부터 4년 정도 다 봤어요.

2000년대 유가협 활동

이경란: 유가협 후원회장이던 문익환 목사님이 방북하시면서 후원회는 어떻게 되었나요?

배은심: 해산이 되다시피 했지. 이해동 목사님, 김거성 목사님이 재건을 하려고 하셨는데 여의치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2009년에 청화스님을 후원회장으로 모시면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이경란: 어머니가 2008년 다시 유가협 회장을 맡으시면서 과거사 통폐합 저지를 위한 유가족공동대책협의회²⁶⁾ 활동을 하셨어요.

배은심: 의문사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이 됐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불능이나 기각으로 처리가 되고 끝나게 됐단 말이에요. 실무진들이 연구한 결과 자진 철회를 하자, 훗날 좋은 세상이 오면 다시 이야기를

25) 장현구의 아버지.

장현구(1969~1995 향년 27세) 서울 출생 1989년 경원대학교 전기공학과 입학 1992년 대통령 공정선거감시단 활동 중 폭력 연행 후 고문 수사 당함 1993년 3월 부정입시 관련 비상학생총회 중 교수, 직원에게 집단 구타당함 1995년 12월 4일 서울 송파사거리에서 분신 10일 간의 투병 끝에 1995년 12월 14일 운명.

26) 2008년 이명박 정권이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회위원회' 등 5개 과거사 위원회 통폐합을 차기 국회에서 논의한 결과에 따라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힘. 이미 한나라당은 과거사 위원회들에 대한 통폐합 법안을 발의한 상태. 이명박 정부는 실용주의, 효율성을 앞세워 위원회들을 폐지. 지난날 국가가 범한 부당한 공권력을 정당화시키고, 희생당한 이들의 명예회복을 중단시키려 함.

하자, 자진 철회를 해서 기회를 한 번 다시 얻자고 했어요. 참 가슴 아픈 농성을 했어요. 현 정부가 들어서고 다시 논의를 한 것도 있고요. 이경란: 용산참사²⁷⁾ 범대위²⁸⁾ 활동도 하셨습니다. 지금 유가협에서 같이 활동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배은삼: 용산참사 때 많이 갔어요. 그 가족들 모습이 87년 내 모습하고 똑 같더라고요. 내가 마음이 아파서 용산 범대위에 참여했죠. 권력에 의해 가족이 희생이 됐으니 오죽 마음이 아프겠어요.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어 …, 이렇게 아픈 사람이 없으면 좋겠어 ….

이경란: 세월호 가족을 찾아 위로해 주신 적도 있어요. 세월호 사건이 벌어졌을 때, 어머니가 한 달 내내 뜨개질만 했다고 하셨어요.

배은삼: 내가 그랬지요. 수원 교육원인가 거기를 가니까 그 어머니들이 뜨개질을 하는 거예요. 나도 세월호 일이 벌어진 다음에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뜨개질을 했는데 거기 가니까 그러더라 말어요. 멀리 있어도 마음은 가까웠나 봐요. 나는 지금도 저 바다에 물이 파도치고 그러면 세월호 생각이 나. 아이고 저거 파도치면 남들은 좋다고 하는데 그 부모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걱정이 되고. 나이도 (그때 나랑) 비슷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안 생겨야 하는데….

이경란: 어머니 말씀처럼 ‘다시는’이란 단체가 있어요. 다시는 자식이 먼

27) 2009년 1월 20일 서울시 용산 재개발 보상대책에 반발하던 철거민과 경찰이 대치하던 중 경찰의 강경진압으로 6명이 사망하고 24명이 부상을 당한 사건.

28) 이명박 정권 용산 철거민 살인 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

저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다시는 나 같은 일을 겪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모님들이 만든 단체예요. 요즘 유가협이라고 할 수 있죠.

배은심: 세월호 뒤에 그런 게 나왔을까?

이경란: 세월호랑, 삼성반도체 황유미²⁹⁾ 아버님,³⁰⁾ 구의역에서 사망한 김군 부모님, 이한빛 피디³¹⁾ 부모님, 김용균³²⁾ 어머니,³³⁾ 현장 실습 가서 잘못된 고등학생 부모님들이 같이 하세요. 1996년도에 노수석³⁴⁾ 추모가에서 “다시는 열사 그 이름을 허락하지 않으리”라고 했는

29) 황유미(1985~2007 향년 23세) 삼성전자 기흥공장에서 일하다 2007년 3월 급성 백혈병으로 사망. 반도체 사업장의 환경이 백혈병을 유발했다는 문제 제기. 2018년 11월 ‘반도체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위원장 김지형 전 대법관)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의 반도체·LCD 라인에서 1년 이상 일하다가 관련된 질병을 얻은 전원을 피해 보상 지원 대상으로 정함. 11년 만에 법적 다툼이 아니라 사회적 기구를 통해 합의에 도달.

30) 황상기, 황유미의 아버지.

31) 이한빛(1989~2016 향년 28세) 서울 출생. 2008년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 입학. 2016년 tvN 예능국 드라마PD로 입사. 2016년 10월 26일 tvN 드라마 〈혼술남녀〉의 조연출로 일하던 중 억압적인 방송노동환경과 비정규직 방송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항거하며 자결. 2018년 1월 방송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한줄기의 빛 (사단법인)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창립.

32) 김용균(1994~2018 향년 25세) 경상북도 구미 출생, 2018년 9월 한국발전기술 입사. 서부발전 태안화력본부 트랜스퍼타워에 배치. 2018년 12월 10일 혼자 작업 중 사망.

33) 김미숙, 김용균의 어머니, 사단법인 김용균재단 이사장.

34) 노수석(1976~1996 향년 21세) 광주 출생. 1995년 연세대학교 법학과 입학. 1996년 3월 29일 ‘대선자금 공개와 교육재정확보를 위한 서총련 결의대회’ 도중 경찰의 토끼몰이식 폭력 진압에 의해 운명.

데, 요즘엔 정치권력하고 싸우다 희생되는 분은 적지만, 사회적인 문제로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님들이 계세요. 지난겨울에 김용균 님 어머니 김미숙 님과 이한빛 피디 아버님 이용관 님이 29일 동안 단식을 하시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과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셨어요.

이경란: 어머님 하고 이소선 어머니, 박정기 아버지 세 분이 함께 활동을 많이 하셨습니다. 두 분은 어떤 분이셨나요?

배은심: 나는 이소선 어머니의 삶을 배우려고 노력을 했어요. 지금도 세상사를 그분과 소통해 보고 싶은 생각이 가끔 들어요. 종철이 아버지는 부지런하셔서 어디를 가도 늘 쓸고 닦으세요. 술을 드셔도 실수하시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같이 다녔지요.

3. 아들을 기념하는 기막힌 일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이경란: 사회적인 문제로 고통을 겪은 분들은 네 가지를 거쳐야 한이 좀 풀린대요.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기념사업.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을 위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하셨어요. 그 전에도 고문으로 돌아가신 분도 있고, 국가 폭력에 의해서 돌아가신 분들이 많잖아요. 재판을 통해서 이것이 틀림없이 국가가 잘못된 거

다라고 밝히셔서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이경란: 제일 처음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하지는 얘기를 누가 하셨나요?

배은심: 연세 동문들이 그랬던 거 같아요. 소장을 보면 많은 변호사들도 협력을 했고 총학에서도 협력을 했어요.

이경란: 형사소송으로는 연세대학교 총학생회가 학생들 서명을 받아서 서대문 경찰서장, 진압한 전투경찰 중대장, 소대장, 최루탄을 쏜 전투경찰 1인을 살인죄로 고발했어요. 그런데 법원에서 최루탄을 쏜 전경 1인을 특정할 수 없다고 기각했어요.

민사재판에서는 국가의 잘못을 인정받으셨어요.³⁵⁾

배은심: 부검하니 머리에서 (최루탄 조각을) 발견했고 ... 본인이 위험한 곳에 있었으니 본인 책임도 30%인지 있다고 하고 ...

이경란: 그때 한열이가 숨을 거두자마자 경찰들이 와서 한열이를 데려가겠다고 했어요. 학생들이 싸워서 경찰들로부터 한열이를 지킬 수 있었지요. 우리가 요청한 의사가 들어가고, 참관인으로 가족도 학생도 들어갔어요. 깨알만한 조각 7개를 1차 부검에서 못 찾고 2차 부검에서 찾았대요.

배은심: 그렇게 원인을 찾았으니 재판이라도 걸었지요.

이경란: 그래도 그 재판에 이겨서 그 다음에 국가를 상대로 싸울 수 있다는 생각을 사람들이 하게 된 거죠. 지금도 가끔 이한열기념사업회에

35) 1988년 10월 지방 법원에서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 받음. 1989년 3월 고등법원 거쳐 1990년 3월 대법원에서 확정.

이 재판 판결문을 구할 수 있냐는 문의가 와요.

이한열기념관 건립

이경란: 전시실이 있는 기념관을 만드신 것도 처음일 거예요.

배은삼: 판결을 받아놓고, 피 값이나? 더러워 못 받는다 했는데 연말이 되니까 국가로 흡수된다고 해요. 그래서 수령을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이한열)기념관이예요. 우리 한열이 피 값인데 그걸 쓸 수는 없어서 그냥 그 돈에 맞춰서 산 것이 흥대 올라가는 언덕에 주택을 구입했는데 거기를 재개발한다고 하니까 지금 자리로 이사를 왔지요.

이경란: 2004년 그 주택을 허물고 지금의 이한열기념관을 지으셨어요.

배은삼: 우리는 항시 뭐든지 남보다 먼저 해서 힘들다. 남들 하는 거 보고 하면 좀 쉬울 텐데... 나는 기념관이라고 하지 말고 ‘이한열 작은집’이라고 불리기를 바라지요. 우리 한열이는 거기 딱 맞는 사람이에요. 크기를 했는가 ... 나이를 먹기를 했는가 ...

이경란: 그 과정에서 우상호 선배가 애쓰셨다고요.

배은삼: 우상호가 고생했죠. 그때 총학생회장이어서 어깨에 무거운 짐을 저 갖고 ... 우상호 하면 이한열, 이한열 하면 우상호 아닌가. 사무실에 가면 한열이 영정 안고 있는 사진이 있어서 “뵈 하러 지금도 걸어 났는가” 그러면 “어머니, 나 마음이 해이해지면 저거 보고 정신 바짝 차려야 해요” 라고 하네요. 그러니 잊어버리란 소리도 못 하고. (입에 침 바르고, “바쁘데 오지 마 오지 마” 하면서 또 안 오면 힘이 하나도



이한열기념관 전경



이한열기념관 전시실

없어. 먼저 한 말은 거짓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고맙고 짝하고.

이경란: 이 작은집을 마련해 주셔서 안정적으로 한열이 유물 보존도 하고, 이한열기념사업도 하고, 다른 분들도 기억하는 <보고 싶은 얼굴>³⁶⁾ 전시도 해요. 다른 분들은 유품을 소각한 경우가 많은데 어머니는 유품을 거의 그대로 두셔서 유물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배은심: 나는 (한열이랑) 같이 살아야 하니까, 니 것을 버리면 안 돼,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왔는데, 제 누나들이 갖고 있느라고 힘들었지요. 둘째가 이사를 할 때마다 끄집고 땡기느라고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그거 볼 때마다 이렇게 가슴이 뛰는데 그 애라고 안 뛰었겠어요.

36) 이한열기념관의 특별 전시로, 해마다 민주화 과정에서 돌아가신 6명을 선정하여 6명의 작가가 작품으로 표현함. 올해로 일곱 번째를 맞는 전시에서는 작품과 함께 엽서, 도록, 영상 등으로 가신 이의 흔적을 남김.

이경란: 작년에 '민주 유공'으로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으셨어요.

배은심: 자식들 명예회복도 안 됐는데 애미가 받아서 뭐 하겠어요.

4. 아들이 주고 간 것

이경란: 지난 30여 년, 처음엔 아들의 뜻을 찾아 나섰지만 어머니의 길을 만들며 살아오셨어요.

배은심: 유가협이 없었으면 난 벌써 죽었을 거예요. 우리 아이들의 죽음이 자기의 이익이나 욕심을 부리거나 이런 죽음이 아니기 때문에 거룩한 죽음이라고 생각해요. 유가협이 한 거는 한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거예요. 열이면 열, 다섯이면 다섯, 있는 대로 그냥 다 같이 가는 거지요. 대중들하고 어울려서. 지금은 사람들이 다 편히 잘 사는 게 바람이에요. 아들의 죽음으로 뭔가를 이렇게 많이 느꼈네요.

이경란: 어머니, 오랜 시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사랑~~